

치료기간이 걱정? '원데이 임플란트'로 고민탈출

기사입력 2012-05-17 10:24 최종수정 2012-05-17 10:39



[이송이 기자] 상실된 치아에 인공치아를 만들어 뼈에 나사못처럼 심는 임플란트는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자연치아와 거의 같다. 임플란트의 이 같은 장점은 예전에 사용되던 치료법인 틀니나 브리지, 레진을 제치고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인공대치물로 떠오르기에 이르렀다.

자연치아와 같은 정도의 우수한 기능과 심미성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기술을 망설인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존의 치료방법에 비해서 높은 가격이고 둘째는 상대적으로 긴 치료 기간이다.

그러나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임플란트의 가격은 하향 평준화되면서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졌다. 기존 치과에서도 99만 원짜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가격할인을 시작한 일부 치과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의 치료기간이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치아뿌리와 동일한 형태의 인공치아를 심게 된다. 따라서 잇몸뼈의 상태, 잇몸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결합되는 기간 등에 따라서 치료기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의 치료기간은 대개의 경우 위턱이 약 3~6개월 아래턱은 약 2~3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턱과 아래턱은 잇몸뼈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려면 치아를 발치하고도 1~2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 임플란트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다.

최근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등장했다. 치아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즉시 임플란트'가 그것이다. '원데이 임플란트'는 효과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되 치료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데이 임플란트'는 대부분의 사고나 충치로 인한 치아의 손상으로 치조골의 손상이 적고 뼈이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보통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잇몸뼈가 현저하게 얇아지기 때문에 잇몸뼈가 흡수되기 전에 치아를 발치하면서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것이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외관상 중요한 앞니의 경우나 남아있는 잇몸뼈가 튼튼한 경우는 바로 치아를 해 놓는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 할 수 있습니다. 당일 식립한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유착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데이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불편함을 최소한도로 줄여주며 심미적으로도 완벽하여 환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원데이 임플란트의 장점을 설명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 **K3, 9월 출시 예정 "K3, K5, K9 라인업 완성"**
-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 **디아블로3가 뭐길래? 한정판 조기마감 예측 "왕십리는 이미..."**
-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91898>
